

## 파브르는 오직 곤충학자였나?<sup>1)</sup>

金 鎭 —<sup>2)</sup>

한국과학기술원 종신회원, 성신여대 명예교수

### 들어가기

우리에게 곤충학자로 알려진 파브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19세기 중반인 1850년대에 시작된 그의 곤충연구 결과는 미물 정도로만 알아왔던 벌레에게도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음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당시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그때까지의 학자들은 고전적 관습에 따른 문장으로 글을 써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브르는 문체를 대화형식으로 크게 바꾸었다. 그랬어도 그의 글은 일반 대중은 물론 학자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책들이 발간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파브르의 중요한 업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과학자만이 아니라 철학자이며 시인으로 활동했기에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을 것이다. 현대인이라도 그가 연구한 곤충학적 지식을 접하면 대다수가 놀람을 금치 못한다. 생물학적으로도 그의 연구는 지난 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겨우 태동한 동물행동학의 선구적, 아니 그보다는 효시였다는 점에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저서 “곤충기(Souvenirs entomologiques)”는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곤충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곤충기가 겨우 어린이들의 흥미거리 정도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게다가 파브르는 매우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도 독학으로 수학, 물리학, 박물학 3종의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파브르 자신은 곤충학자이기보다는 시인이며 철학자, 사상가임을 자처하며 살았었다. 그림 실력도 대단해서 자기가 연구한 버섯을 정밀하게 그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실력은 곤충기에 실린 곤충들의 정밀화로도 증명된다. 사실상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사람들은 그의 사고방식과 재능을 본인의 뜻대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두뇌의 소지자가 대단한 노력을 경주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의 생애를 연구하여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필자는 그 실상을 알려서 우리의 사고를 시정해보고자 이 글을 쓰기로 했다.

글의 구성은 파브르의 유년기부터 시작하여 노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생애

1)Jean-Henry Fabre is Only Simple Entomologist?

2)KIM, Jin Ill, Life Member/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Emeritus/Sungshin University); E-mail: jikim@sungshin.ac.kr

전체를 고찰하는 형태로 하였는데, 참고자료는 조지 빅토르 르그로(Georges Victor Legros), 이브 들랑즈(Yves Delange), 이브 캄브뤼(Yves Cambfort) 등의 책자를 이용하였다. 르그로 박사는 평소에 파브르의 문학과 탁월한 연구능력을 대단히 존경하여 그의 시집을 비롯한 여러 종의 책을 발간해왔는데, 그중 파브르의 일대기 부분을 참고하였다. 들랑즈는 현재 Paris 자연사박물관의 교수로서 1985년부터 2011년까지 파브르에 관해 4권의 책자를 발행하였다. 그중 곤충기의 서문으로써, 파브르와 연관되었던 여러 학자나 사회적 인사들과의 교류 내용을 수집하여 편집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젊어서 개인병원의 병리사로 근무하던 아마추어 곤충학자 캄브뤼는 현재 Paris 자연사박물관의 연구원이며, 파브르에 관해 두 번의 책자를 펴냈다. 그중 1999년에 발행한 파브르의 생애, 저서 내용 및 논문목록을 참고하였다.

## 유년기와 청소년기

장·앙리 파브르(Jean-Henry Casimir Fabre)는 1823년 12월 21일 프랑스 중남부 아베이롱(Aveyron)현의 산악지대인 루에르그(Haut-Rouergue) 지방, 밀로(Millau) 근처의 작은 마을 썩-레옹(Saint-Léon)에서 부친 앙뜨완(Antoine Fabre), 모친 빅토와르(Victoire Salgue)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부모는 무학력으로 르-말라발(Le Malaval)의 두메산골 돌밭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외조부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집달리로 근무했다는데 파브르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부친은 어려서 학교를 조금 다녀 글은 겨우 터득했으나 도시생활에 유혹 당했다가 평생 빈곤함을 면치 못했다. 생활고는 마침내 네 살짜리 파브르를 조부모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사랑은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일곱 살이 되자(1830년) 썩-레옹의 부모에게 돌아와 교회학교에 입학했다. 요즈음 같으면 감히 학교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이었다는 회한의 글이 파브르곤충기 제6권 4장에 실려 있다. 아홉 살 때 이 지방의 수도에 해당하는 로데즈(Rodez)로 가족이 이사를 했는데, 여기서 구내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받아 왕립학교(Royal Colledge)를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해(1833) 학교를 접어야만 했다. 그 무렵 부친은 Cafe를 운영했으나 영업 부진으로 파브르는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4년 뒤(1837) 툴루즈(Toulouse)로 이사하여 에스킬 신학교(Séminaire de l'Esquile)를 다녔으나 다음해 다시 몽펠리에(Montpellier)로 이사를 했고, 부친의 사업은 여전히 실패였다. 집안의 이사는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어린 파브르는 스스로 제 입에 풀칠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집을 나와 과일노점상, 포도 따기, 철도건설 노동자 등으로 일을 했다.

이런 와중에도 공부는 혼자서 열심히 했던 모양이다. 열일곱 살이 되던 1840년, 아비뇽의 보끌뤼즈(Avignon, Vaucluse) 초등사범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다. 여기서는 급비생(장학생)이 되어 기숙사까지 제공받았다. 맹렬한 자습과 독학으로 2년 만에 졸업을 하여 열아홉 살(1842)에 아비뇽 동쪽의 방투우산(Mt. Ventoux, 1909m) 자락과 가까운 카르팡트라(Carpentras)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파브르곤충기 제6권 4장 참조). 하지만 연봉은 700 프랑밖에 안되었다. 다른 교사들도 대다수가 박봉인지라 교내에서 생활을 했고, 식사도 교장의 책상에서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또래 청년이 찾아와 토목학교에 가고 싶으니 대수학(代數學)을 가르쳐달란다. 사실상 파브르는 그때까지 代數에 代 자도 몰랐

고, 책은 당연히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브르는 스스로 공부해서 가르치기로 작정을 한다. 하지만 수학책을 살 돈조차 없다. 임시방편으로 다른 부자 교사의 책을 잠시 훑쳐서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빌리려했다가는 어떤 망신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와 환경이었기에 훑친 것이다. 그때의 저돌적인 용감성으로 공부한 이야기를 파브르곤충기 제 9권 13장에서 회고하고 있다. 훑쳐온 책장을 넘겨보다가 뉴턴의 2항정리(*Binôme de Newton*)라는 제목에 이끌려 대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 경제생활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하학(幾何學)까지 공부했다.

## 청년기

가난한 초보교사의 과감한 도전정신은 다음해(1843)에 수학, 그 다음해는 물리학의 학사학위 시험에 합격시켰고, 1847년(24세)과 1848년에 몽뻬리에 대학에서 이학사 자격과 물리학 학사학위를 받기에 이른다. 다음해(1849) 콕스현(Corse: 현재의 코르시카섬)의 아작시오(Ajaccio) 국립중학교의 물리교사가 되었고, 연봉은 1,800 프랑이었다(혹시 지방근무수당 제도 있어서 연봉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연봉도 21세에 결혼하여(1844) 아이까지 딸린 가장에게는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수입이었다.

가족꾸리기도 평탄치 못했다. 동료교사인 마리(Marie-Césarine Villard, 1821-1885)와 결혼하여 7남매를 두었으나 첫째 딸 에리자베스(Elisabeth-Marie-Virginie)는 10개월, 첫째 아들 장(Jean-Antoine-Emile)은 20개월밖에 살리지 못했다. 여섯째 쥘(아들, Jules-André-Henri, 1861-1877)은 아버지 연구의 훌륭한 후계자 감이었으나 16세를 겨우 넘기자 사

망하여 파브르가 크게 애통해하였다(파브르 곤충기 제1권 본문 마지막 쪽 헌정사 참조). 셋째인 앙뜨완(딸, Antonine-Andréa, 1850-1898), 다섯째 끌레르(딸, Claire-Euphrasie, 1855-1891), 일곱째 에밀(아들, François-Emile, 1863-1914)은 각각 결혼은 했으나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특히 끌레르의 결혼생활은 4년을 넘기지 못했다. 두 살 연상인 부인도 64세에 사망했다. 다만 넷째인 딸 아글라에(Aglae Emile, 1853-1931)는 장수했으나 그녀는 평생 아버지 곁에서 가정살림을 도맡았다. 그래도 첫 부인 사망 2년 뒤 21년 연하인 조세핀(Marie-Joséphine Daudel, 1864-1912)과 재혼하여 얻은 1남(Paul-Henri, 1888-1967) 2녀(Pauline-Henriette, 1890-1974; Anna-Hélène, 1893-1977)는 모두 장수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비록 젊은 날은 가난으로 암울한 시대만 거친 것 같아 보이나 남들의 도움도 있었고, 파브르 자신이 스스로 해낸 일도 많았다. 이 무렵(1849) 아버님의 르끼앵(Esprit Requin: 아마추어 식물학자)이 코르시카 섬으로 식물 채집을 와서 그와 동행하게 되었다. 파브르의 재능을 알아본 르끼앵은 뿔루즈 대학의 박물학 교수 모깁-팡돈(Moquin-Tandon, 1804-1863)에게 파브르를 소개하였다. 모깁-팡돈 교수는 1851년도에 식물을 조사차 코르시카에 왔다가 보름간 파브르와 함께 생활을 하며 그의 재능을 확신했다. 그래서 파브르에게 연체동물 해부법을 가르쳐주면서 수학이나 물리학은 전망이 없으니 박물학자의 길을 택하도록 권했다. 이미 식물과 곤충 연구에 매료되어있던 파브르는 곧바로 박물학사학위 취득과 대학에서 박물학 교수가 되는 꿈을 꾸게 된다. 그러나 그해 말 열병에 걸려 아버님에서 요양 후 다음해 다시 아작시오로 돌아왔다. 1853년, 아버님사범학교(Lycée d'Avignon)에서 물리학과 화학 담당 조교수

로 임명되었으나 연봉은 1,600 프랑에 불과했다. 그래도 이 해는 첫 시집(詩集)을 펴낸 해이기도 하다.

1954년도에 까르뽕뜨라에서 노래기벌을 연구했는데 이 논문으로 프랑스 과학원(Académie des Sciences)으로부터 실험생리학상(Monthyon 상)을 받는다. 1857년에는 “가뢰(Meloidae, 딱정벌레목)의 과변태”에 대해 발표했다. 즉 곤충의 변태에는 과변태 방법이 존재함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며, 이 업적은 나중에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게 되는 계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 1858년에는 영국의 찰스 다윈(Charles Darwin)과 친교를 맺게 되는데 그는 저서 “種의 起源”에서 파브르의 연구를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그해는 식물인 꼭두서니의 연구로 우승을 하기도 했다. 1861년도에 식

물학자 들라꾸르(Theodor Delacour) 교수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장학사로 왔으나 장학 관리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즉 프랑스에서는 자기 품위유지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는 교수가 될 수 없으니 그 길을 포기하라는 충고였다. 실망스런 충고를 잘 받아들였으나 이제부터 파브르는 재산 모으기에 전념한다. 그 방편으로 농산물의 산업적 개발(예: 꼭두서니에서 염료 개발, 버섯의 이용방안 등)을 위한 화학 실험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학교, 특히 초중등학교 이과(理科) 전 분야에 걸친 학습교재나 참고서를 무척 많이 집필했다. 경제학 책도, 문과 학생의 독서를 위한 독본도 썼으며, 그중 33권은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했다.

참고로 교재나 참고서를 분야별로(곤충학 분야 제외) 몇 권씩 무작위로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는 정식 교과서로 채택된 책이다.

- 화학 : 1862, 1863, 1864, ★LECONS ELEMENTAIRES DE CHIMIE AGRICOLE. Avignon (초등용 농화학)/1870, CHIMIE ORGANIQUE. Paris (고학년 유기화학)/1872. CHIMIE ELEMENTAIRE. Paris (대학, 연구소의 초년생용)/1880-1891, 화학의 기초개념 등 7종 8권.
- 물리학 : 1864, PHYSIQUE. LECTURES ET LECONS POUR TOUTES LES ECOLES. Paris (모든 학교용)/1867, NOTIONS PRELIMINAIRES DE PHYSIQUE. Paris (초급 고등)/1870, PHYSIQUE ELEMENTAIRE. Paris (대학, 연구소 초년생용)/1868-1890, 학생~대중용 물리학의 기초 또는 개념 등 10여 권.
- 수학 : 1869, ARITHMETIQUE AGRICOLE THEORIQUE ET PRATIQUE. Paris (초등생 농사용 산수)/1872, ★ALGEBRE ET TRIGONOMETRIE. Paris (대중용 대수학, 삼각법)/1872, ARITHMETIQUE ELEMENTAIRE. Paris (대학, 연구소 초년생용).
- 지리 : 1865-1884 LA TERRE. Paris 모든 학교용 7권/1876, GEOGRAPHIE. Paris (인문, 자연과학도용).
- 지질 : 1877, GEOLOGIE. Paris (대학, 연구소 초년생용)/1881, LES TERRAINS ET LES PIERRES. Paris (학생용 지질사)/1882, ★GEOLOGIE: ELEMENTS D'HISTOIRE NATURELLE. Paris (고학년용 지구의 역사).
- 천체 : 1867, ★LE CIEL : LA SCIENCE ELEMENTAIRE. Paris (모든 학교용)/1872, ★ASTRONOMIE ELEMENTAIRE. Paris (천문학 기초).
- 동물학: 1872, 1882, ZOOLOGIE. Avignon (모든 학교 이과반)/1876-1899(★1884), ZOOLOGIE. Paris (대학, 연구소 초년생용 6권)/1900, HISTOIRE DE BETES : Paris (동물 이야기).
- 식물학 : 1867, HISTOIRE DE LA BUCHE. Paris (아동용 식물의 삶)/1873, ★BOTANIQUE. Paris (모든 학교)/1876, 1882, 1887, ★LA PLANTE. Paris (내 아이들을 위한 식물학- 아동용)/1886, ★

- BOTANIQUE : ELEMENTS D'HISTOIRE NATURELLE. Paris (5학년용).
- 박물학 : 1877, NOTIONS D'HISTOIRE NATURELLE. Paris (대학, 연구소 초년생용)/1889, ★ HISTOIRE NATURELLE (1. Zoologie 2. Botanique 3. Geologie. 752 p., figs)/1890, SCIENCES NATURELLES : GEOLOGIE, ZOOLOGIE ET BOTANIQUE. Paris (중등여학생)/1901, ANIMAUX, VEGETAUX ET TERRAINS, Paris (원색 자연도감-30 도판).
- 농업 : 1871, 1878, 1880, 1882, 1885, LES LAVAGEURS. Paris (Paul 아저씨의 농업해충 이야기).
- 기타 : 1881, 1885, LECON DE CHOSES. Paris (8, 9 학년용).
- 독본 : 1869, LE LIVRE D'HISTOIRES. Paris (Paul 아저씨의 모든 학교용)/1874, ★AURORE : CENT RECITS SUR DES SUJETS VARIES. Paris (다양한 주제)/1889, ★MAITRE PAUL, SIMPLES RECITS SUR LA SCIENCE. Paris (모든 학교용).
- 경제학 : 1875, LE MENAGE, CAUSERIES D'AURORE AVEC SES NIECES SUR L'ECONOMIE DOMESTIQUE -E. Paris (가정경제-가정에서 여학생의 청소, 대화 등)/1891, ★PREMIERS ELEMENTS D'HYGIENE. Paris (초등생의 위생학, 과학 소사전).
- 기술 : 1875, ★L'INDUSTRIE, SIMPLES RECITS DE L'ONCLE PAUL SUR L'ORIGINE, L'HISTOIRE ET LA FABRICATION DES PRINCIPALES CHOSES D'UN EMPLOI GENERAL DANS LES USAGES DE LA VIE LA SCIENCE ELEMENTAIRE. Paris (모든 학교용)/1880, ★COURS DE MECANIQUE. Paris (인문 및 과학도의 기계공학)/1881, 1886, ★ LES INVENTEURS ET LES INVENTIONS. Paris (발명가와 발명).
- 문학 : 1875, LITTERATURE FRANCAISE - PRINCIPES DE COMPOSITION ET DE STYLE. Paris/1892, ★ LITTERATURE FRANCAISE - CHOIX DE MORCEAUX TRADUITS DES AUTEURS GRECS. Paris (2종 모두 인문과 과학도의 문학 교육용).

## 좌절과 도약의 인생

파브르가 어렸을 때는 비록 가난했어도 조부모나 부모는 물론, 거쳐 간 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아마도 그가 착실하면서도 촉망한 재능의 소유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는 크게 두 번의 좌절을 맞보게 된다. 그중 한번은 구세주를 만남으로써 곤충 연구에 전념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나 다른 하나는 평생 꾸어온 꿈인데 끝내는 이루지지 않았다. 꿈이란 바로 대학의 박물학 교수가 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가난한 천민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픈 희망이었다. 비록 이 꿈은 날아갔어도 그가 곤충을 택해서 탁월한 연구 능력을 발휘한 결과는 그 꿈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출중하여

마침내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대학교수가 꿈이었으나 많은 부양가족 덕분에 자기 과목 외에도 별도로 고등학교에서 물리, 화학, 박물학을 2시간씩 가르쳤고, 또 실 틈 없이 2시간짜리 기하학 과목을 더 맡아서 도식 그리기, 평면측지법, 제도법으로 곡선 긋는 법 따위를 가르치고 있었다(1860년). 그때 갑자기 수업중인 교실로 장학관이 들어닥쳤다. 검덕은 선생들은 그를 악어(Crocodile)라고 부르던 사람이다. 수업을 마친 뒤 그에게 수업한 내용과 학생의 작품(수업 결과물)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태도를 접한 파브르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할 차례인가보다 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그 장학사는 느닷없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

가를 물어왔다.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다. 질문의 요지는 자기도 재산 없이 교수가 되었으나 박봉에다 별도의 품위유지비를 갖지 못해서 주변으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며 울분을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자네(파브르)는 논문이나 글재주로 보아 교수의 자질이 충분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라는 충고였다. 파브르는 그의 흥분과 충정어린 충고에 감사했고, 일단 교수의 꿈을 접었다. 그 장학사는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들라꾸르 교수였으며, 이후로는 서로가 깊은 친분을 맺게 된다. 사실상 파브르는 얼마 전에 비엔나(Vienne) 지방의 모 대학으로부터 동물학 강좌의 주임대리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사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하루에 3프랑으로 일곱 식구가 살아야 할 판이다. 그래서 굉장히 명예로운 그 자리를 정중히 사양한 일이 있었다.

인간이 꿈을 접기란 정말로 힘든가보다. 그래서인지 파브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벌기로 작정한다. 그 방편의 하나로 그 지방(Avignon)에서 많이 생산되는 꼭두서니에서 염료 원료인 알리자린(Alizarine)의 추출법을 개발하여 공장을 차릴 계획이었다. 수많은 실험 끝에 염색에도, 인쇄에도 아주 훌륭한 염료 개발에 성공했고, 친구 하나가 공장에서 대규모로 실험도 해보았다.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파브르곤충기 제10권 22장의 몇 문장을 직접 인용해보자. “*무척 기뻐다. 이제 겨우 장래가 내다보인다. 나의 회색 하늘에 뚫린 구멍 하나에서 장밋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대학교수에게 꼭 필요한 재산을 나도 갖게 되겠지. 그날그날의 땀 문제로 골몰하던 지옥에서 해방되어, 조용히 곤충 사이에서 생활할 수 있겠지. (중략) 자, 그런데 허사였다. 너는 해방을 위한 몸값 몇 푼을 만들지 못할 테니. 언제까지나 노예의 쇠사슬을 끌고 다니리라. 네 좋은 헛소리를 울렸다.*” 공장의 문을 열자마자 독일에서

‘꼭두서니 염료의 인공합성을 화학(化學)이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브르의 희망은 여지없이 날아갔고, 덕분에 이 지방의 농업과 공업도 철저히 무너졌다.

꿈은 날아갔지만, 지금은 교회로 쓰이나(44세, 1867년) 전에는 썽-마살(St. Martail) 성당이던 건물을 실험실 삼아 맹렬히 실험중인데 갑자기 교육부장관 빅토르 뒤뤼(Victor Duruy, 1811-1894, 그리스, 로마 사학자)가 실험실로 들이닥쳤다. 그의 방문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 장관은 일찍이 파브르의 업적과 열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지방에 왔다가 일부러 틈을 내 찾아온 것이며, 그는 헤어질 때 아버지농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파브르야말로 이 지방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의 저명인사라고 소개를 하였다. 얼마 후 프랑스의 국가 훈장인 레지옹·드뇌르(Légion d'honneur)의 수여자로 지명도 해주었고, Paris로 불러올려 나폴레옹 3세 황제를 배알하는 영광까지 얻었다(파브르곤충기 제10권 22장 참조).

1863년에 프랑스의 교육부장관으로 발탁된 뒤뤼 씨는 고등교육제도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여자 중등교육제도를 창설한 것이 중요한 업적의 하나였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도 이때까지는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평소부터 개방적인 사상가 파브르는 특히 뒤뤼 장관을 흠모해왔던 터라 신념을 가지고 그의 정신에 협력했다. 그래서 이화학과 박물학을 열심히 가르쳤다. 하지만 혁명에는 반드시 보수파가, 즉 반대파가 있게 마련이며, 그 시대로서는 지나쳤던 수업 내용이 결국 이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다. 파브르곤충기 제2권 8장의 문장을 조금 인용해보자. “*나는 젊은 처녀들에게 공기와 물은 무엇인가, 번개와 뇌성벽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왜 호흡을 하는가, 종자에서 어떻게 하여 싹이 나오며 꽃은*

왜, 어떻게 피나, (중략) 따위를 가르쳤다.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떤 지식인가, 지식이라는 그 등불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꺼버려야 한다. 주재님은 그 불의 지지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뒤뮐 장관도 결국 사임하게 된다(1869년). 지금 파브르가 세를 든 집주인은 노처녀였다. 어찌면 히스테리한지도 모를 그녀는 새로운 교육이란 저주받을 타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열한 자들과 결탁하고는 어느 날(1870년) 갑자기 4주 내에 집을 비우라는 집달리의 종잇조각을 보내왔다. 물론 기한을 어기면 가재도구를 모두 길바닥에 던져버리겠다는 문서였다. 갑자기 살집이 필요해진 파브르 가족은 우선 오랑쥬(Orange)로 이사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파브르는 아버농을 탈출하게 되었고, 20년간의 교사생활도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된다.

때마침 영국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씨가 이 무렵 휴양하러 이곳에 와있었다. 그는 파브르가 아버농의 르끼앵박물관(Musée Requien d'Avignon) 관장으로 발탁되던 1866년에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서로 친분을 맺게 된 사이였다. 파브르가 곤경에 빠진 것을 본 밀 씨는 거금 3,000 프랑을 빌려준다. 무이자에 무기한이다. 이 부분의 문장을 접한 필자는 “과연 이런 정신을 소유한 서양인들이기에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튼 파브르는 빚을 갚고자 맹렬히 집필하였다(얼마를 갚았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밀은 3년 뒤 아버농에서 사망했다). 물론 곤충 연구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1877년(54세), 연구의 열렬한 동반자였던 아들 쥘(Jules)이 갑자기 죽었고, 파브르 자신도 폐렴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을 헤맸다. 이때는 쥘의 동생 에밀(Emile)이 언 땅에서 캐온 꼬마꽃벌이 따듯한 방안

에서 깨어나 발랑발랑 기어 다님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을 뿐, 즉 곤충 관찰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죽어 감만 관찰했다고 회고했다(파브르곤충기 제8권 9장 참조). 불굴의 의지 앞에서는 죽음도 손을 드는 모양이다. 1878년, 기어코 “곤충기” 제1권의 집필을 완성하여 다음해인 56세에 출간했다. 출간 한 달 전인 3월 4일, 소위 황무지 땅 아르마스(Harmas: 원 발음은 “아홀마”에 가까우나 로마자 한글표기법을 따랐다)를 구입하여 세리냥(Sérignan)으로 이사한다.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기 땅, 자기 곤충연구소였다. 이때의 벽찬 감격을 곤충기 제2권 첫머리(1장) 글로 피력하였다.

## 고난 뒤에 피고 지는 꽃

장년기에 접어들어 곤충기 제1권이 발행되어 널리 알려지자 예전에 집필했던 책과 교재들까지 잘 팔려나가 생활형편이 아주 좋아졌다. 1880년대에 들어선 파브르는 연수입이 아버농 교사 때의 열 배인 16,000 프랑이나 되었고, 곤충기는 대략 3-4년, 말년에는 2년마다 한 권씩 연속적으로 출간하였다. 각 권이 수차례 재판 발행되기도 하였다. 제2권을 발행한 1882년도는(58세) 연로한 부친을 모시고 함께 사는 행복까지 누렸다. 게다가 들라그라브(Charles Delagrave, ?1842~19??)가 연구와 집필을 크게 도왔다. 그는 파브르가 노쇠로 사망하자 중단되었던 곤충기 제11권의 첫 두 장의 원고를 대신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파브르에 관한 수많은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파브르가 곤충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수행했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비천했던 시절, 가난으로 행복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목적을 달성한 셈

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32세에 벌써 Monthyon 상을 받았고, 34세부터 Darwin과 친교를 맺었다. 50대에 들어서자 과학자의 자격으로 나폴레옹 황제를 배알하였고, 그 전해인 1886년에는 르끼앵박물관의 관장이 되었고, 곤충의 행동과 해부학적 업적으로 Thore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수많은 수상이 있었고, 여러 학회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협회(1876년)와 세계박람회(1878)에서 각각 은메달을 받았고, 1887년(64세)도는 과학원(Académie des Sciences)에서 통신회원(지방회원)의 지명과 함께 Dolfus상을 받았다. 이제는 Paris 자연사박물관의 동물학 및 곤충학 교수이며 과학원 원장인 블랑샤르(Émile Blanchard, 1819-1900)에게 융숭한 파티를 열어줄 수도 있었다. 2년 뒤, 학사원(Institut de France)에서도 권위 있는 빠띠 돌모아(Petit d'Ormo)상과 상금 1만 프랑을 받았고, 1892년도는 벨기에, 1894년 프랑스, 1902년 러시아, 프랑스, 런던, 스톡홀름 등의 곤충학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파브르의 저서를 모방한 책들이 많이 출현했다. 교과서의 지정도 점점 끊겼다. 게다가 세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지출도 많아져 이제는 여유생활과 멀어져갔다. 그래도 과학원이 1903년(80세)년부터 1914년까지 11년 동안 매년 상금이 딸린 Nee et Gegner상을 수상했다. 1907년, 르그로(G.V. Legros, ?-?) 박사는 곤충기 제10권의 발행을 기념하는 파브르축전(Fabre's jubilee) 제언했다. 이때 르그로는 새 책은 물론 전의 책도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파브르가 다시 가난해졌음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래서 축전을 통해 곤충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파브르의 측근들과 함께 1910년 4월 3일을

“Fabre의 날(Fabre's jubilee)”로 창설했다. 이에 부응하여 스웨덴 과학원은 린네 금메달(Linnean gold medal)을, 프랑스는 레지옹·드뇌르 훈장을, 학사원은 알프레드(Prix de Alfred Née)상을 수상했고, 제네바 연구소(Institut de Genève)는 원로회원으로 추대했다. 이제 파브르는 다시 유명해졌고 곤충기도 갑자기 잘 팔려나갔다(참고: Fabre의 날에 대해 캄브뤼는 축제 발의시기가 1907년이라고 했고, 또 어떤 자료는 여기에 앞장 선자가 시인 미스트랄(Mistral)이며 그의 노력으로 3,000 프랑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로서는 어느 말이 더 정확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다음해(88세), 프로방스(Province) 지방의 시인, 미스트랄(Fédéric Mistral, 1830-1914)이 주축이 되어 파브르를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노벨재단은 너무 고령인 점과 분야의 불분명 등을 이유로 수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89세가 된 다음해, 부인 조세핀이 사망하자(1912년) 이미 많이 노쇠해버린 파브르는 더 이상 연구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많은 저명인사들의 문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프랑스 국민을 대표한 대변자로 디에리(J. Thierry) 노동부장관을 대동한 뿌왕까레(Raymond Poincaré) 대통령의 문병도 있었다(1913년 11월 14일). 1915년 5월 파브르는 마차로 아르마스연구소를 한 바퀴 돌아보았고, 6월에는 요독증(尿毒症)이 발동하였으며, 10월 11일에 향년 92세로 타계한다.

그의 사망 6년 후인 1921년 12월 11일, 프랑스 정부는 파브르가 마지막에 살았던 집을 사들였다. 연구소 “파브르의 아르마스(Harmas de Fabre)”는 Paris 자연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영구 보존하기로 하였고, 그의 생가도 박물관(史籍 및 천연기념물)으로 보존하고 있다.



**SOUVENIRS ENTOMOLOGIQUES**

필자가 “파브르곤충기”로 번역한 책의 원제는 “Souvenirs Entomologiques(곤충학적 회

상)”이며, 여기에 “Études sur l'Instinct et les Mœurs des Insectes(곤충의 본능과 습성에 관한 연구)”라는 부제가 붙여졌다. 각 권별 발행 연도와 각 장의 제목(번역)은 다음과 같다.

- 제1권(1879) : 1. 진왕소똥구리/ 2. 소똥구리 사육/ 3. 비단벌레 사냥꾼 노래기벌/ 4. 왕노래기벌/ 5. 암살의 명수들/ 6. 노랑조롱박벌/ 7. 단검으로 세 번 찌르다/ 8. 애벌레와 번데기/ 9. 고차원의 학살들/ 10. 홍배조롱박벌/ 11. 본능의 과학/ 12. 무식한 본능/ 13. 방뚜우산에 오르다/ 14. 동물의 이주/ 15. 나나니/ 16. 코벌/ 17. 파리 사냥꾼 18. 기생취파리 그리고 사냥벌들 고치/ 19. 귀소능력/ 20. 진흙가위벌/ 21. 여러 가지 실험/ 22. 등지 바뀌치기 실험/ 기타: 신종 기재
- 제2권(1882) : 1. 아르마스 곤충연구소/ 2. 쇠털나나니/ 3. 미지의 감각기관-나나니의 송충이 찾기/ 4. 본능론/ 5. 호리병벌/ 6. 감탕벌/ 7. 진흙가위벌에 대한 새로운 연구/ 8. 우리 집 고양이/ 9. 붉은불개미/ 10. 곤충 심리에 대하여 한마디/ 11. 독거미 검정매타란틀라/ 12. 대모벌/ 13. 나무딸기의 주민들/ 14. 돌담가뢰/ 15. 돌담가뢰의 1령 애벌레/ 16. 남가뢰의 1령 애벌레/ 17. 과변태
- 제3권(1886) : 1. 배벌/ 2. 험난한 먹을거리/ 3. 점박이꽃무지의 굼벵이/ 4. 배벌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 5. 기생곤충들/ 6. 기생설/ 7. 미장이벌의 고달픈 삶/ 8. 우단체니등에/ 9. 밀들이벌/ 10. 진흙가위벌에게 또 다른 기생벌/ 11. 동종이형 애벌레/ 12. 구멍벌/ 13. 녹가뢰, 알락가뢰 그리고 황가뢰/ 14. 식단 바뀌보기/ 15. 진화론에게 한 방 먹이다/ 16. 성별 섭식량 차이/ 17. 뿔가위벌/ 18. 암수의 성 분배/ 19. 알의 성 분배는 어미의 뜻대로/ 20. 알의 성전환
- 제4권(1891) : 1. 청보석나나니/ 2. 좀대모벌, 그리고 청보석나나니의 식량/ 3. 본능의 착오/ 4. 제비와 참새의 등지/ 5. 본능과 통찰력/ 6. 체력 소모의 경제학/ 7. 가위벌/ 8. 가위벌붙이/ 9. 수지(송진) 채취 가위벌붙이/ 10. 작은집감탕벌/ 11. 진노래기벌/ 12. 나나니의 사냥 수단/ 13. 배벌의 사냥 수단/ 14. 황띠대모벌의 사냥 수단/ 15. 반론과 답변/ 16. 벌침의 독성/ 17. 하늘소/ 18. 송곳벌에서의 문제
- 제5권(1897) : 1. 진왕소똥구리-똥구슬/ 2. 똥-배 모양 경단/ 3. 똥-경단의 모양내기/ 4. 똥-애벌레/ 5. 똥-번데기와 해방/ 6. 목대장왕소똥구리와 소똥구리/ 7. 스페인뿔소똥구리/ 8. 똥-어미의 습성/ 9. 두 종류의 소똥풍뎡이/ 10. 금풍뎡이-위생 문제/ 11. 똥-등지 짓기/ 12. 똥-애벌레/ 13. 매미와 개미의 우화/ 14. 매미-땅속 탈출/ 15. 똥-탈바꿈/ 16. 똥-노래/ 17. 똥-산란과 부화/ 18. 사마귀-사냥/ 19. 똥-사랑/ 20. 똥-알집/ 21. 똥-부화/ 22. 뿔사마귀
- 제6권(1899) : 1. 긴다리소똥구리-부성애/ 2. 넓적뿔소똥구리와 들소뿔바스소똥풍뎡이/ 3. 격세유전/ 4. 나의 학교생활/ 5. 판파스 초원의 소똥구리/ 6. 색깔/ 7. 곤봉송장벌레-매장/ 8. 똥-실험/ 9. 대머리 여치-습성/ 10. 똥-산란과 부화/ 11. 똥-발음기관/ 12. 중베짱이/ 13. 귀뚜라미-굴과 알/ 14. 똥-노래와 짹짹기/ 15. 메뚜기-자연에서의 역할, 그리고 발음기관/ 16. 똥-산란/ 17. 똥-마지막 허물벗기/ 18. 소나무형렬모충나방-산란과 부화/ 19. 똥-등지, 그리고 사회/ 20. 똥-행진/ 21. 똥-일기예보/ 22. 똥-나방의 탄생/ 23. 똥-피부 발진/ 24. 서양소귀나무 송충이/ 25. 곤충의 독성 물질
- 제7권(1900) : 1. 왕조롱박먼지벌레/ 2. 의사행동/ 3. 최면 상태, 그리고 자살/ 4. 옛날 바구미/ 5. 얼룩점 길쭉바구미/ 6. 굵길쭉바구미/ 7. 본능에 따른 식물 지식/ 8. 코끼리밤바구미/ 9. 서양개암밤바구미 / 10. 버들복숭아거위벌레/ 11. 포도복숭아거위벌레/ 12. 다른 잎말이 딱정벌레들/ 13. 버찌복숭아 거위벌레/ 14,15. 긴가슴잎벌레 1,2/ 16. 가라지거품벌레/ 17. 큰가슴잎벌레/ 18. 큰가슴잎벌레-알/ 19. 연못/ 20. 날도래/ 21. 주머니나방-산란/ 22. 주머니나방-주머니/ 23. 공작산누에나방/ 24. 떡갈나무술나방(수도사나방)/ 25. 후각

- 제8권(1903) : 1. 꽃무지/ 2. 완두콩바구미-산란/ 3. 同-에벌레/4. 강낭콩바구미/5. 노린재/ 6. 가면침노린재/ 7. 꼬마꽃벌-기생충/ 8. 同-문지기/ 9. 同-치녀생식 10. 유럽웃나무의 진딧물-충영/ 11. 同-이주/ 12. 同-짜짓기와 알/ 13. 진딧물 포식자/ 14. 금과리/ 15. 쉬과리/ 16. 둥근풍뎡이붙이와 수시렁이/ 17. 지중해송장풍뎡이/ 18. 곤충의 기하학/ 19,20. 땅벌 1,2/ 21. 대모꽃등에/ 22. 세줄호랑거미/ 23. 나르본느타란틀라
- 제9권(1905) : 1. 나르본느타란틀라-땅굴/ 2. 同-가족/ 3. 同-오르기 본능/ 4. 거미의 대탈주/ 5. 게거미/ 6. 왕거미-거미줄 치기/ 7. 同-내 친구/ 8. 同-끈끈이 그물/ 9. 同-전신줄/ 10. 同-그물의 기하학/ 11. 同-짜짓기, 그리고 사냥/ 12. 同-소유권/ 13. 수학의 기념-뉴턴의 2항정리/ 14. 수학 공부의 기념물-나의 작은 탁자/ 15. 대륙풀거미/ 16. 뒤랑납거미/ 17. 랑그독전갈-거처/ 18. 同-식사/ 19. 同-독/ 20. 同-에벌레의 면역성/ 21. 同-짜짓기의 전주곡/ 22. 同-짜짓기/ 23. 同-가족/ 24. 도롱이까치벌레 / 25. 털가시나무왕공까치벌레
- 제10권(1907) : 1. 유럽장수금풍뎡이-땅굴/ 2. 同-첫번째 관찰 기구/ 3. 同-두 번째 관찰 기구/ 4. 同-윤리학/ 5. 고약오동나무바구미/ 6. 재주꾼뚝하늘소와 굴벌레큰나방/ 7. 지중해소똥풍뎡이-아가 방/ 8. 同-에벌레와 번데기/ 9. 소나무수염풍뎡이/ 10. 노랑꽃창포바구미/ 11. 채식주의 곤충/ 12. 난쟁이/ 13. 불구자/ 14. 금록색딱정벌레-급식/ 15. 同-혼인 풍습/ 16. 검정파리-산란/ 17. 同-구더기/ 18. 구더기에도 기생벌/ 19. 어린 시절의 추억/ 20. 곤충과 버섯/ 21. 잊을 수 없는 수업/ 22. 공업화학
- 제11권(미완성) : 1. 북방반딧불이/ 2. 양배추벌레

이 곤충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엿보인다.

우선 다량의 곤충학적 지식을 개발해냄으로써 현대생물학의 발전에, 특히 동물행동학(動物行動學, Ethology)의 기초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이 드러난다. 행동학은 상당히 근래에 와서 생물학의 한 분과로 태어난 학문분야이다. 즉 1973년도에 Karl von Frisch 등이 ‘꿀벌의 행동’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정식으로 생물학의 한 분과가 되었는데, 파브르는 이보다 1세기 앞서서 곤충과 육상 절지동물의 행동을 연구하여 이 분야의 엄청난 선구자였다. 그의 연구는 발생학(發生學)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음을 보여준다. 곤충의 변태에는 과변태(過變態, Hypermetamorphosis) 방법이 존재함을 발견했고, 꼬마꽃벌은 처녀생식(處女生殖, Parthenogenesis)을 함을 발견하여 곤충발생학 분야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그 시대보다 150년 전에 사멸된 전성설(前成說)의 사고방식

을 가진 채 발생학적 연구를 함으로써 시대에 무척 뒤떨어진 모순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 두 분야 외에도 동물의 특성인 감각생리학(感覺生理學)의 발전에 단초를 제공한 연구도 적지 않다. 한편 파브르는 진화론자인 다윈이나 미생물학자로서 자연발생설(自然發生說)을 부정한 파스퇴르(Louis Pasteur)와 접촉이 있었고, 자연발생설의 부정은 대단히 환영했다. 그러나 진화론(進化論)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인 것 같지만 이에 대해 특별히 연구를 하지도,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화 문제는 다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곤충기에서 파브르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이론은 “곤충은 지능(知能)의 존재가 불가하며, 그들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본능(本能)에 의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곤충 같은 미물 따위의 작은 머리에는 지능을 갖출 여력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

다. 결국 파브르는 허접스런 생명체가 본능 행동을 가졌다는 점만 신기했을 뿐, 동물로서의 그것들은 멸시 낚이라는 의도를 깔고 있었다. 게다가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론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현대생물학이나 심리학에서 본능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확히 규명하려하지 않거나 용어를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고려할 때, 그의 생각은 지나치게 고루했다. 더욱이 말년에는 곤충이 학습(學習)됨을 관찰했으면서도 그들의 지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주장해온 이론을 잃기 싫은 아집처럼 보여서 이 점이 그에게 최대의 단점처럼 보였다.

또 하나의 큰 결점은 분류학자에 대한 불평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신중에 학명을 붙인 사람들은 죽은 표본만 본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 곤충의 특성을 모르는 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류학자들은 무식해서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혹평이 너무도 잦았다. 하지만 실상은 파브르가 잘못 알았거나 틀린 것이 많아 그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연구대상은 한 종뿐인데 그 종에다 여러 학명, 현존하지 않는 학명, 여러 불어명, 스스로 지은 이름 등을 붙여서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분류학자를 혹평하고 생물 이름을 남용한 이유는 아마도 ‘오직 자신만이 많이 아는 지식인’이라는 자만심의 발로에서 왔을 것 같다. 말하자면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아마추어 곤충학도들의 정신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던 것 같다는 생각이다. 비록 이런 결점들이 있기는 해도 무지했던 시대의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들임을 감안하여 그는 열성적으로 동물학, 특히 곤충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곤충기를 읽다보면 파브르는 천재였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선 어떤

종의 연구에 처음 착수했을 때 적절한 조사 방법을 잘도 개발해내는 점이 눈에 띄었고, 전 권을 다 읽고 나서는 전체적인 구성이나 각 주제의 편성이 너무도 잘 짜였음을 보고 더욱 놀라웠다. 어떤 미지의 곤충을 맨 먼저 연구하려는 사람에게는 애로사항이 많이 따른다. 특히 습성을 처음 들여다보려는 사람은 대개 관찰수단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다. 그런데 파브르는 아주 평범하며 타당한 수단들을 쉽게 잘도 찾아냈다. 즉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수단을 너무도 잘 찾아내 그는 참으로 기발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는 10권에 편성된 주제와 주제별 내용의 전개과정에서 그의 천재성이 더 잘 드러난다. 곤충기 전체는 각각 20개 내외로 총 220여 편의 논문(주요)을 30년에 걸쳐서 10권에 편성시킨 것인데, 각 권마다 대체로 몇 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었고, 하나의 주제는 도입의 장을 거쳐 본론의 장, 그리고 결론의 장으로 전개시킨 점은 가히 천재적이라 하겠다. 다양한 연구를 모두 끝낸 다음 성격별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라 장을 배열한 작품이라면 무조건 훌륭하게 편성했다고 칭찬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브르는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재료와 주제에 대해 관찰과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제별로 도입의 장을 거쳐 결론의 장으로 이끌어간 점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 파브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인이이며 철학자였다

파브르는 자신이 철학자라든가 사상가임을 자처하며 살아왔다. 이 점에 대하여 그가 활동했던 남부지방에서는 물론 전 프랑스가 그런 것으로, 또한 그는 시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서는 파브르가 우리나라에서처럼 단순한 곤충학자로만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틈틈이 시를 써왔고, 타인의 시를 수집하여 파브르곤충기에 인용하기도 했다(제5권 13장). 글 솜씨가 아주 탁월해서 문과, 이과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쉽게 읽혔다. 이는 아마도 아비뇽 초등사범학교의 학생 때부터 로마시대 이래의 고전들을 많이 탐독했던 탓에 훌륭한 인간상, 훌륭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 배경이 쌓여 본인의 시집이 출판될 수 있었고, 주변 사람이나 출판사가 그의 생전 또는 사후에 그의 시를 모아 발행하기에 이른 것 같다.

파브르의 시집의 예로는 Arithmos(= Le nombre, 數, 1853), Ubreto provençalo dòu Felibre di Tavan (1909) 따위를 들 수 있고, 타인의 시를 수집해서 번역하여 발간하기도 했다. 그의 시집 중 Poésies françaises et provençales는 Delagrave 출판사가 1925년에 발행했다가 1980년도에 Raphèle-les-Arles 지방의 노래를 추가하여 다시 발행하기도 했다. 시집뿐만 아니라 책자, 곤충기의 발췌본 등이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책자 Le Ciel(天體)은 1910년 Bernard E.E. Fournier에 의해 영어로, 1911년 Paul Ulmer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Nils Lago-Lengquist는 1911년에 곤충기의 발췌본

을 스웨덴에서 번역하였고, Bernard Miall은 역시 1911년에 곤충기 발췌본을, 1913년에 시집을 영어로 번역, 발행하였다. 1913년 이래 2000년도까지 파브르의 생애나 업적을 기린 저서는 20권도 넘는데 그 목록은 생략하기로 한다.

필자는 학문적으로 수많은 업적을 쌓았고, 철학자나 시인으로 인정받은 파브르에 대하여 그는 천재라고 부를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도 그의 독자였다면, 그는 적어도 비범한 삶이 아니라 전혀 미지의 세계라도 과감하게,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뛰어들어 적극성과 열성을 발휘하며 타파해 나간 인생이었음을, 또한 그 과정에서 두뇌의 회전능력을 상당히 발휘했음을 인정할 것이라 믿으며 이 글을 마감하려 한다.

## 참고문헌

- Georges-Victor Legros, 1913, La vie de Jean-Henri Fabre, naturaliste par un disciple. Delagrave, Paris, 297 pp. ([www.e-fabre.com/en/biogeography/fe/outline.htm](http://www.e-fabre.com/en/biogeography/fe/outline.htm)을 참고함).
- Yves Cambefort, 1999. L'œuvre de Jean-Henri Fabre, Éditions Delagrave, Paris, 224 pp.
- Yves Delange, 1989. Préface et arbres généalogiques. Souvenirs entomologiques I: 1-121. Éditions Robert Laffont, Bouquins, Paris, 1989. ISBN 2-221-05463-6.

다음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따온 것이므로 무작정 수록함에는 주의해야 할 것임.  
단, 인물과 훈장은 널리 배포되어 있어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음.



Jean-Henri Fabre



레지옹 · 드뇌르 훈장



파브르의 생가



세리냥에 세워진 파브르의 동상